

만남

2018년 5월
통권 16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용기란 옳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蒼齡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행복의 조건-----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어린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라---	4
우리 소공동체	-----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오월의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선교 :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창의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합시다.



행복의 조건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자녀보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켜 본 한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외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루카 11,27).”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28).”고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은 자랑스럽거나 뿌듯하거나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사벳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주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즈카리아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루어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을 의심해서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병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루카 1,20).

그리고 보면 성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전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셨으니까, 교회가 공경하는 분이시니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할 뿐입니다. 사실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는 훗날에 우리가 붙여드린 칭호이니까 그분이 무슨 여왕 처럼 사셨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한 특별한 남자의 어머니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래도 성모님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분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 대답이 그녀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그분이 행복한 여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훌륭한 아들, 하느님의 아들의 죽음을 홀로 알고 그 십자가 아래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그 아들 말고 다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어 한없이 고통스럽고 그 아들이 잉태되던 날 천사의 말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힘, 남자의 도움 없이도 아기를 잉태시키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으셨습니다. 아니 믿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손에 살해당하시다니.

행복은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재산을 풍족히 모으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생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자연의 원리에 순종하며 농사일로 굽은 허리로 오늘도 호미질을 하시는 어떤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분의 마음은 경건하고, 그분의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누구는 농부로, 누구는 회사원으로, 누구는 학자로, 누구는 가정주부, 누구는 사제로 살아갑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일을 하던 자신의 인생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라(시편 131,1-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5장 “어린이처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저희 안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저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31, 1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나서지도
주제님께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 2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 떼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 떼 아기 같습니다.
- 3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맡겼던 경험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은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속이는 일은 누워서 떡먹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아이들은 쉽게 믿습니다. 아이들은 잘 속지만 사실은 잘 속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키우는 ‘베로’라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사모예드(생김새는 귀여운데 덩치가 큼)라는 종인데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견종입니다. 가끔 베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어른들과 아이들의 반응이 천지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서 쓰다듬고 만지고 안고, 저는 안중에도 없이 베로를 둘러싸버립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경계하며 굳은 표정으로 주시합니다.(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왜 입마개를 안 했느냐, 멧돼지 같다, 여름에 덥겠다, 물지 않느냐, 사료 많이 먹겠다 등 경험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저의 일상입니다.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세요. 삶에 지친 굳은 얼굴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얼굴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은 얼굴이 되어가는 어른들입니다. 때로는 밝고 기쁘게 어린이들처럼 웃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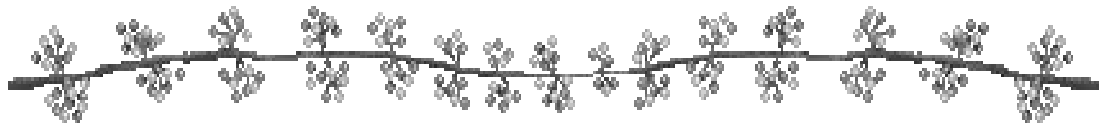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도 굳어져 울지 않는 어른들이 많은데 아이들처럼 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느끼며 울고, 슬픔을 나누며 울고, 정의롭지 못함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꾸밈없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시다. 여기에 우리 삶을 풀어가는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5장 “어린이처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

완월동본당 지역부장 박혜옥 레지나

무학산 자락 가까이에 자리한 완월동본당은 현재 성지여자고등학교 사택을 임시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 12월 현 위치에 완월동본당이 봉헌되었고, 이후 증축공사를 하여 2007년 1월 새 성전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당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 큰 왕 벚꽃나무는 올해로 설립 117주년을 맞이하는 본당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완월동본당 소공동체는 7개 구역 26개 반으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7~8명이 소공동체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지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전입보다 전출이 늘고 있어 소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소공동체장 월례회에서는 한 달 동안의 소공동체 활동을 확인하고 의논합니다. 가정과 병원 봉성체 환우의 근황을 전하고 레지오 팀에도 공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돌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공동체의 아픈 분들을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고 돌보아 드리는 것은 소공동체의 주된 활동입니다.

1구역 3반은 창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부부가 전입 후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낯선 환경에 놓여 냉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원들은 가게에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매월 발행되는 매일 미사와 공동체소식을 전해주며 열심히 회두중입니다. 3구역 6반은 아파트 지역으로 젊은 교우가 많습니다. 신영세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신심단체에 가입하여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장인이라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끔 퇴근 후 시간에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영세자들이 발걸음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자매님들이 모인 6구역 4반은 반원 중 젊은 형제분이 암투병 중이라 그분과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초봄, 가지치기를 하여 흥해 보인다고 싶었던 왕 벚꽃나무는 금세 가지에 새잎을 달고 꽃잔치를 합니다. 신록의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계절이 바뀔 적마다 노환으로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당 마당의 왕 벚꽃나무처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다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는 완월동 공동체에 주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청해봅니다.

13. 천사란?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천사(angel)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앙겔로스(angelo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사는 하느님을 모시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三大) 천사 중 미카엘 천사는 하느님의 권능,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며 임종하는 사람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묵시 12,7)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와 같은 분이며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호자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루카 1,19) 라파엘 천사는 병을 낫게 해주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장애인의 수호자입니다.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 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 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야의 아내가 되게 해 주고 또 아스모대오스라는 악귀를 내쫓아 주는 것이었다.”(토빗 3,17 참조)

하느님은 각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수호천사를 하나씩 정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지켜주고, 사람의 시종을 들어주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시편 91,11)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 행위도 ‘천사의 행동’입니다. 한순간 감동을 주었더라도 ‘순간의 천사’입니다.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다면 ‘영원한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히브 1,14)



14.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성당에 오면 성모님 앞에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 성인, 순교자 등과 관련하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성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은 가장 큰 성지입니다. ‘성모님의 자궁’도 예수님이 9개월이나 머물렀던 흔적이요, 은총의 장소로서 가장 큰 성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모님 공경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7)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성인에 대한 공경을 구분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흠숭의 예를 흠숭지례(欽崇之禮)라고 합니다.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각별한 공경의 예를 상경지례(上敬之禮), 성인 성녀들에게 드리는 존경과 사랑을 공경지례(恭敬之禮)라고 합니다. 흠숭지례는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만 유일하게 드리는 공경의 예입니다. 인간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셨고, 신앙의 모범이 되신 성모님께는 특별한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하느님을 증거한 삶을 살아가신 성인께는 존경을 드리는 공경의 예를 드립니다.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호칭기도에서 흠숭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과 성인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성모송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성모님만큼 아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한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루카 2,51 참조)

15. 교중미사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사(Missa)라는 말은 라틴어의 ‘Missa’를 음역한 데서 유래합니다. 라틴어 미사(Missa)는 ‘보내다’, ‘파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미테레(Mittere)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기쁨을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원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미사를 거룩한 잔치인 식사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빵의 나눔’ 또는 사랑의 잔치인 ‘아가페(Agape: ‘조건 없는 사랑’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사도 2,46)라는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2~3세기부터는 감사의 뜻으로 미사를 에우카리스티아(Eucharistia: ‘감사를 드린다.’는 뜻의 그리스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 중에 교중(敎中)미사는 어떤 미사인가요? 교중미사란 본당 사목자가 매 주일 신자가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개별적인 미사 지향 없이 모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미사(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 연미사(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미사)는 교중미사가 아닌 다른 미사 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중미사는 개별적인 지향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지향을 두며 모든 교우를 주님께 봉헌하는 본당 사제의 감사와 사랑을 얻는 미사입니다. 본당 사목자가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본당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같은 빵을 쪼개어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랑(아가페)과 감사(에우카리스티아)의 거룩한 잔치인 교중미사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

오월의 기도(작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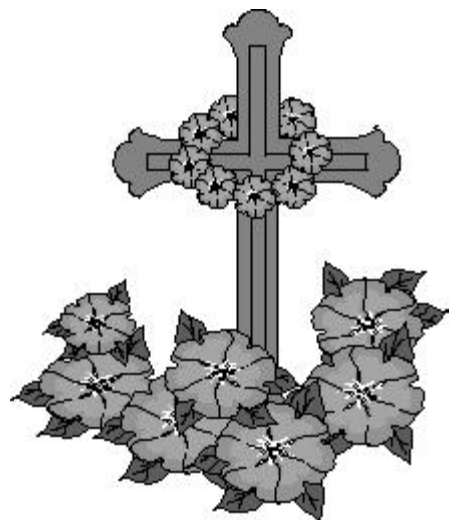
눈부신 햇살과 푸름이 더해 가는 오월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하루, 하루를 살면서
이 아름다운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장미꽃의 아름다움과
아카시아 꽃의 향내에 취하여
내 등 뒤에 서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한숨짓는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이
오월의 내 삶에도 변화된 삶을 주셔서
마음에 사랑만 가득 심고
미움의 싹이 움트지 않게 하소서.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
하루의 삶이 어려운 일상일지라도
성내거나 무표정한 얼굴보다는
맑고 고운 표정을 짓게 하시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표정과
잔잔하고 부드러움이 깃든 온유한 표정으로
우아하고 고귀함이 깃든 참된 '나'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질문

사석에서 대화 중 요즈음은 종교가 필요 없다. 특히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힐난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비난에 대하여 영성심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은 자주 듣는 말입니다. 또 일부 사이비 종교들로 인하여 종교가 사람들의 일상과 가정을 파괴하고 마약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를 다 안다는 것처럼 무지한 짓입니다.

우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화 과정의 흔적 즉, 파충류 같은 지층, 포유류의 지층, 영장류의 지층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혼재해 있어서 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건강관리를 잘못된 사람이 중병에 걸리듯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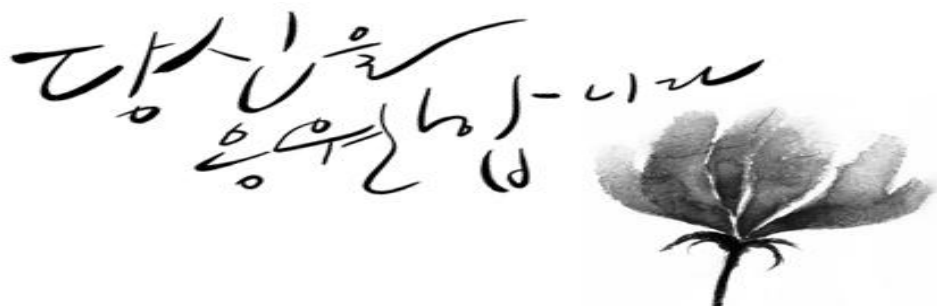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 조상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 구실 못하는 놈이라고 욕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그런 지층으로 되어 있음에 선지식이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욕을 먹지 않으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느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절제하고 다듬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 구실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마르크스가 말한 아편의 기능 때문입니다. 아편은 아주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아편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고달픔에서 벗어나 사람의 마음에 잠시의 휴식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희망을 품으면 찌들어가는 마음,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오랫동안 군부 독재로 인하여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은 그래도 행복지수가 높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의 신심, 불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병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교 신심이 준 선물인 것입니다. 종교를 단순히 아편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산 증거입니다.

또한 미얀마 국민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 교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누가 탈이 나면 그 사람이 일을 다 볼 때까지 기다려주고, 음식을 먹을 때는 낫선 이에게도 권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적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 최빈곤국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미얀마 국민들은 종교적 심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과연 선진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심성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바람직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준 지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소득 수준과 경제지표로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복음지수에 의해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주, 성모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박영복 루치아)

목주!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연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내 가슴은 여지없이 설레곤 한다. 힘겹고 괴로웠던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모님과 나를 이어준 소중한 끈이었기에. 그래서 나는 팔에, 손가락에, 그리고 가방에 목주를 챙겨 다닌다. 언제 어디서라도 바로 꺼내어 성모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나는 1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다.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남편은 말 한 마디 못하고, 몸 한 번 움직여 보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16일을 보내고 어이없이 가버렸다.

7남매의 맏며느리로 27년이라는 세월의 만만치 않았던 시집살이에 지쳐 있던 나는 남편에게 그리 좋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자 그 괴로움이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혼자 남은 고통은 차치하고, 마치 남편의 죽음이 내 탓인 것만 같아 후회와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부정해 보아도 그 죄책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나는 본당 신부님께 면담을 청했고, 그동안 남편과 나의 상황들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3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십시오. 목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과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신 다음 3일 되는 날 조용한 곳에 홀로 가서 묵상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반복하면서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신부님 말씀대로 절절한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과 목주기도를 바쳤다. 그때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3일씩 금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조용한 방에 들어가 혼자 다시 기도하며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으로 한 답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네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씀이었기에 나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엎드려 울었다. 그랬다. 그러한 죄책감 자체가 얼마나 큰 오만이었던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해소를 찾았고, 내 고백을 들으신 신부님은 쾌활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셨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나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꾸며지는 정원이라 여겼다. 또 당장은 마땅치 않게 여겨지는 일들도 결국 최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늘 깨우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리라 다짐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안타깝지만 내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묵주의 9일 기도로 성모님과 예수님께 자주 떼를 쓴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나 문득 떠올려 보면 응답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달으며 감사의 환성을 올리곤 한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백만 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듣고, ‘나도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적어도 백만 송이의 장미를 바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5년여 동안 5만 단(50만 송이)을 정신없이 바쳤다. 요즘은 좀 여유를 갖고 기도하고 있지만 레지오 마리아 단원이자 로사리오회 회원으로서 묵주기도는 내 의무이자 즐거움이며 당당함의 기반이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무능력하지만 성가대에서 찬양을 바칠 때에도, 연령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더러 말씀을 전할 때에도 묵주기도로 오는 은총을 믿기에 어느 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나를 위해 성모님께서서는 난데없는 향기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슴을 채워주시기도 한다.

나는 묵주기도뿐 아니라 ‘예수 수난 15기도’와 연옥 영혼들을 위한 연도도 매일 바치고 있다. 내 의식이 살아 있는 한 평생 그러리라 다짐했고 성령께 의탁했다. 이 기도들은 오래지 않아 예수님께로 돌아갈 내 영혼이 헛되어둠 속을 헤매지 않도록 그분들께 나를 인도해줄 빛과 길이 될 것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 보 (St. Pillip)	김 경 열 이 수 웅	15일	소피	이공종 박영희
4일	카타리나	오 경 은	16일	요 한 (St. John)	홍 경 영
8일	데시데라토	방 은 일	22일	울 리 안 나 울 리 아	최 효 정 방 수 정
11일	비발도	김 건			
12일	젬마 (St. Gemma)	김(이)정자 방 영 자			
14일	크리스티안 (St. Christian)	이 성 원	30일	요 안 나 (St. Joana)	윤 석 순
25일	소피아 (St. Sophia)	이 신 자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 곱 (St. Jacob)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St. Benedicta)	민병진(H)		니 콜	김지희(H)
8일	이 다	최이다(H)	15일	소피아	박영희(B)
12일	젬마	김선주(H)	22일	릿 따	김남화(B)



❖ 5월 성가번호 ❖

5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6일	129	136	153	134
13일	25	219	170	44
20일	138	216	165	130
27일	가 족 미 사			

❖ 5월 미사 전례 봉사자 ❖

5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1구역
13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2구역
20일	브레멘(1독서) 하노버(2독서) 오스나브뤼크(보편지향기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전신자
27일	가 족 미 사			3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계(€)	228,48	119,70	158,71	220,62
헌납금	100			110
구좌입금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810.00 * 헌납금 총 합계 1.01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3월 25일 - 2018년 4월 15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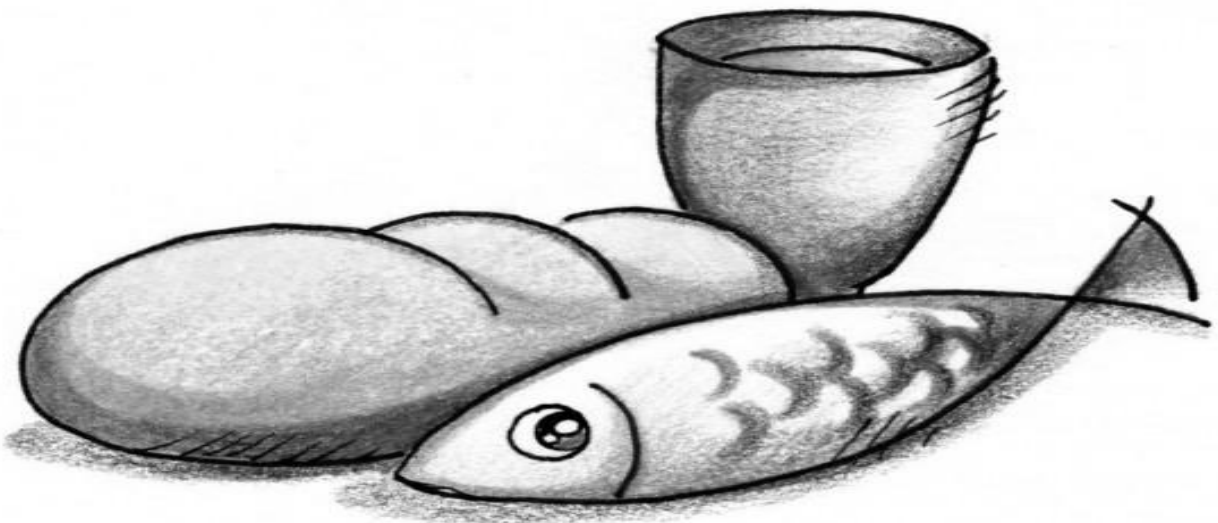
이수용,	강신행,	진윤희,	박인성,	김계희,	손수희,	배성우,
김민수,	이기열,	최장용,	서세원,	김민옥,	이궁중,	강순행,
이종화,	이현묵,	우동천,	이정수,	윤예진,	이경규,	황영선,
방은일,	김기연,	신옥희,	권지연,	문수진,	김경미,	현영애,
김형용,	최승진,	이(박)정은,	김점선,			

구좌입금 :

영희 Eggerstedt,	김대현,	홍종각,	이정훈,	김보경,	옥종인,
홍경영,	김치수,	허길조,	김진호,	최현봉,	허두옥,
박준병,	김유석,	이상봉,	영희 Huber-Pahr,	김동수,	이석우,
방조영자,	남궁준배,	최순남,	강일남,	이정옥,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5월은 성모님 성월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5월 3일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가 있습니다.
3. 5월 6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4. 5월 9일 수요일 오전미사 후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5월 9일 수요일 19시에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성모님의 밤 행사가 미사와 함께 있습니다. 미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성모님께 초와 꽃을 봉헌하는 이 아름다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6. 5월 11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7. 5월 13일 주일미사 후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8. 5월 20일 일요일 성령강림대축일에는 본당의 날 행사가 Planten un Blomen 공원에서 있습니다. 11시까지 와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될 예정이오니 오셔서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길 청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 5월 24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 모임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10. 5월 25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11. 5월 27일 주일미사는 가족미사로 봉헌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4월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4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했습니다.
3. 3월 23일 조영실(마리세실) 가정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하하며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4. 박샘솔(체칠리아) 자매님이 5월 29일 졸업연주회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5. 5월 공동체 미사는 5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4월 공동체 미사는 4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하였습니다.
4. 5월 공동체 미사는 5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4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4월 14일(토) 부활 제4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부활계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 5월 공동체 미사는 5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Pernickelmühle에서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방조영자(젼마)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O.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젼마)	
			총 무	육종인(베로니카)	
정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5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노동자 성 요셉		
2	수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목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믿음의 샘 뿌리아	
4	금			
5	토	어린이 날, 입하		브레멘 공동체
6	일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사목월례회	
7	월	대체공휴일		
8	화	아버이 날		
9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9:00 성모님의 밤, 만남성당 강당
10	목			
11	금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3	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Muttertag	청년회 소공동체	
14	월	성 마티아 사도 축일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성령 강림 대축일	11:00 본당의 날	
21	월	교육 주간, 소만		
22	화	석가탄신일		
23	수			
24	목		연령회 월례회	
25	금		4구역 소공동체	
26	토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27	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가족미사	
28	월			
29	화			
30	수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31	목	복되신 마리아의 방문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